



- 독일의 여학생과 여성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

이현아 |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

- 제55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관련 핵심의제와 여성정책

오은진 | 본원 연구위원

- OECD/IFP 회의를 다녀와서

홍승아 | 본원 연구위원

- UN Women의 창설과 5대 과제

윤현주 | 본원 연구원

I. 녹색일자리와 여성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20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2000년 55.9%에서 2009년 69.0%로 무려 13%p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한 고무적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현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난 10년간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은 50% 수준에서 변화되지 않고 있다. 또 여성근로자 중에서 10명 중 5명이 여전히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여성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은 음식·숙박업(전체 종사자의 약 70%)으로서 이들의 임금은 100만원 미만이다.¹⁾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돕기 위한 여성인력 개발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는 2011년 핵심과제로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추진 중이며, 새일센터를 통해 10만 여 개 여성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인력개발정책의 세부적 실천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통해 정부가 우리 경제구조의 향후 발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녹색경제 내 녹색일자리와 여성의 연계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까지 107.4조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방안 마련과 조화될 수 있으며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 가능하게 하는 경제구조 변화를 추진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정책은 2013년까지 약 118~1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나도록 계획되어있다는 점이다.

녹색성장 정책이 2013년에 끝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계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다. 여성과 여학생을 위한 녹색일자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고취시키며, 녹색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미래 경제·직업구조의 재편에 여성인력들은 또 다시 특정영역에서의 분포만을 보일 것이다.

1)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09).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부는 여성들을 다양한 분야로 진출시키는 여성고용정책이 녹색성장 분야로 연계되어야 함과 관련하여 이미 2007년 4월 여학생들과 여성에게 특히 환경과 자연보호를 위한 직업 분야에서 적절한 직업을 소개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었다. 우리와 달리 여성들의 취업률은 OECD 평균이상인 독일에서도 여성들의 절반이상이 좋은 학교성적에도 불구하고 10 여개 정도의 직업군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2011년 1월 24일 동 환경부는 다시 한번 이 책자를 소비자 보호부분 영역에서의 직업 전망을 추가해서 새롭게 재발간했다. 이 책자의 서론은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여성들에게 여전히 판매사무원, 의사보조원, 미용사가 가장 인기있는 직종이고, 자연과학, 기술적 직종은 이 선호직장에 들어있지도 않으며, 심지어 대학선택에 있어서도 이공계는 전혀 비호감인 사태를 직시하고 있다. 이 책자의 취지 및 내용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소개해본다.

II. 『환경·자연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업들 - 여학생과 여성을 위한 지침』²⁾

이 책자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여성들에게 추천할만한 24가지 녹색직업에 대한 소개이다. 둘째, 주 관청에서 관할하는 4가지 녹색직업훈련과정을 소개한다. 셋째, 녹색직업 현장체험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녹색직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처음 세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정리해볼 것이다.

1.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24가지 녹색직업

이 책자는 여학생들과 여성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녹색직업들을 <환경과 자연분야>, <산림경영 관련분야>, <농촌과 정원관리분야>, <식물과 동물 관련분야>, 그리고 <소비자 보호분야>라는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총 24가지 소개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분야	환경과 자연	산림경영	농촌과 정원관리	식물과 동물	소비자보호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학자 - 기상학자 - 환경상담사 - 환경기술공학자 - 환경보호 기술보조사 - 순환-폐기 전문가 - 배승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엔지니어 - 산림관리자 - 숲교육자 - 여행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엔지니어 - 정원사 - 조경설계사/건축가 - 조경생태엔지니어/자연보호 엔지니어 - 자연 및 조경돌보미 - 측량기술자/지구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관리인 - 생선업자(양식 및 요리) - 농촌서비스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학자 - 생활물품화학자 - 생활물품관리사 - 에너지상담사

2) 『Berufe in Umwelt-, Natur- und Verbraucherschutz - Ein Wegweiser fuer Maechen und Frauen.』 (Ministerium fuer Klimaschutz, Umwelt, Landwirtschaft, Natur- und Verbraucherschutz des Landes Northeim-Westfalen, 2011)

이 24가지 직업들이 더 여성에게 적절할 것이라고 소개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단지 자연과학적, 기술적 능력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정서적, 소통적 능력도 동시에 요청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들에게 적절한 녹색직업들의 소개와 함께 이 직업들을 위해 요청되는 직업훈련 등에 관한 세부 정보원도 안내하고 있다. 이 책자가 소개하는 직업들 중 몇 가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환경학자

환경학자는 인간과 동·식물을 위해 가능한 최상의 환경조건을 만들고, 현재의 환경이 그런 조건이 아닐 경우 지속가능하며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담당한다. 따라서 전문화된 자연과학적 능력뿐만 아니라 법적·경제학적·교육학적 그리고 사회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담당업무는 거주민과 기업을 위한 환경분석과 평가 및 기후에 위협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하대책 마련 등 환경개선 전략과 관련된 일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방안 마련,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안 마련 등의 정치상담 등의 일도 한다. 환경학자들은 관청이나, 협회, 상담사무실, 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일한다.

〈교육방법〉

독일에서는 약 12개 대학과 전문대가 환경학 혹은 환경공학을 독자적 학과로 제공하고 있다.

2) 환경상담사

환경상담사는 상담 요청자들이 환경에 적절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관청에 전기절약 할 수 있는 사무용품이 무엇인지, 용수를 재활용할 경우의 비용과 장점을 분석해주는 일 등을 한다. 또 공장 유해물질 측정업무도 있고, 혹은 업무수행자들에게 환경에 적절한 태도 등을 교육시키는 일도 한다. 이 업무는 확실한 자연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관심 및 탁월한 소통능력이 요청된다. 일부는 대기업의 환경보호사나 환경관리자로 일하지만, 대부분 자유 직종으로 기업과 가정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 추가교육 방법〉

지금까지는 국가가 공인한 '환경상담'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환경상담사는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추가적으로 특정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았다. 교육과정의 기간은 그 집중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국환경상담협회가 이 분야 직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위해 기준을 제시하였고 500시간의 추가교육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3) 에너지 상담사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에너지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국가적 촉진프로그램이 있는가? 에너지 상담사는 이러한 질문에 도움을 준다. 또 주택, 사무실, 공장의 냉·난방기, 환기 및 위생시설을 검사하고 고객이 저렴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오래된 건물의 보수나 새로운 건물 건축계획 시 또는 정원을 만들 때 상담을 해준다. 에너지 상담은 기술적 지식 이외에도 사회적인 능력 요청되는 광범위하게 세분화된 업무분야이다. 에너지 상담사는 기계산업, 에너지공급기업, 건축사, 소비자연합을 위해 필요하며, 혹은 독자적으로도 활동한다.

〈교육/ 추가교육 방법〉

에너지 상담사는 수공업준치이나 직업교육법에 따른 직업추가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은 수공업자 회의소, 대학 등에서 제공된다. 그 집중도에 따라 교육기간은 최대 1년이다. 추가교육은 건축기사, 자연과학자, 엔지니어, 수공업자, 건축기술과 부동산경제 영역 전공자에게 적합하다.

2. 주 관청에서 관할하는 4가지 녹색직업훈련과정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 관청의 여러 기관들에서는 화학실험실 요원, 전문정보사, 하천공사 요원, 산업기술자 등 녹색직업훈련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수습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 중 이 책자가 소개하고 있는 4가지 훈련 과정은 아래와 같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시 합격률이 지난 10년 동안 30%이상 상승한 점으로 볼 때, 녹색 공무원직 역시 우리 여성들의 관심이 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근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로써는 이 수습근무를 통한 녹색직업추가훈련 및 채용시스템은 눈여겨볼 만하다.

1)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 환경청 고위 환경기술직 / 고위 기술직 수습근무

이 두 가지 직업훈련과정은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의 지역 및 국가기관과 다른 기관(예를 들어 협회나 경제업계)에서 담당하게 될 녹색업무를 위한 것이다. 주로 탄소배출 보호, 물·쓰레기경영, 토양보호영역의 업무를 준비한다. 수습근무 지원을 위해서는 모두 대학교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하며, 고위 환경기술직 수습근무의 경우 15개월, 고위 기술직 수습의 경우 2년의 수습기간을 가진다.

2) 고위 농촌관리 행정직 수습근무

수습근무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교 관련학과를 졸업해야하며, 직업훈련수습은 2년이 걸린다. 세미나 이외에도 구·군 단위 관청과 전문 관청에서 오랜 기간 실습이 있다.

3) 고위 농업경제직 수습근무

대학 해당학과 졸업 후 최소 1년간 관련분야의 실습을 포함한 직업훈련이 있어야 수습근무에 지원할 수 있다. 수습근무는 2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목을 심화시키게 된다.

4) 수의사청 수의사직을 위한 수습근무

수의학과 학업은 개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청에서의 근무를 위해 추가적으로 2년과정의 추가교육이 더 필요하다. 4개월 이론과정과 20개월의 관청근무이다. 특별한 조건하에서는 6개월로 단축될 수 있으며, 이 수습근무는 필기와 구두로 이뤄지는 국가시험으로 끝나치게 된다.

3. 현장체험 정보

이 책자는 또한 직업선택에 있어 정보와 상담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떻게 직업훈련과 직업활동이 이루어지는가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라는 취지하에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girls day

매년 4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girls day. 이 날 독일 전국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어린 여학생들이 직업선택에 있어 별로 고려하지 않는 직업들을 소개하기위해 사무실, 실험실, 공장을 공개한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부터 무려 12만 2천명의 어린 여학생들이 직업세계를 돌아보고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 대학 학과정보제공의 날

많은 대학들은 정기적으로 대학소개의 날을 갖는다. 여기에 가면 교수, 대학생들과 대화시간도 있고, 실험해 볼 기회도 있다. 어느 대학이 어느 날 대학소개의 날을 갖는지는 인터넷 사이트 www.studienwahl.de 참조하면 된다.

3) 맛보기 대학수업

고등학교 시절 이미 대학수업에 참여해서 그 학과가 기대에 부응하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다. 맛보기 수업 제공정보도 인터넷 사이트 www.studienwahl.de 참조.

4) 실습

직업연합 등은 실습할 곳을 물색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실습지를 찾을 수 있다. 가령 '환경 실습'을 위한 정보는 www.praktikum-fuer-die-umwelt.de 참조하고 환경·자연보호를 위한 실습, 자원 봉사, 직업 및 노동캠프에 대한 유럽차원 정보는 청소년환경연계축진연합의 www.oekojobs.de를 참조하면 된다.

5) 녹색직업 체험을 위한 자발적 생태안식년

환경보호, 자연보호 관련 직업을 갖으려고 고민은 하지만 100% 확실하지 않아 고등학교와 대학진학사이에서 실습을 해보고 싶다면, 자발적 생태안식년 프로그램이 있다. 매년 8월 1일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16세에서

27세까지 자연, 환경보호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실습이나 대학입학전의 기다림의 시간으로서 간주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12개월간 생태학적 직업에 관해 조망하고, 자연보호연합, 환경청 등에서 실습기회를 갖으며, 용돈과 사회보험 그리고 휴가가 주어진다.

III. 여성의 일자리교육과 미래한국

여학생들과 여성들이 녹색직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소개받고 훈련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이제 여성들의 인권문제 만이 아니라 국가 미래경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1년 전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불과 15년 후인 2026년에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예상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이미 오래된 저출산의 결과는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이다. 이미 5년 전인 2006년부터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30대와 4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5년 후인 2016년부터 15세에서 64세로 분류되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와 있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곧바로 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부대책의 핵심에도 인력자원, 특히 여성인력자원의 개발이 있다³⁾.

그리고 다양한 경제활동 모든 분야에 여성인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여학생들에게 그동안 성별로 치우쳤던 직업호감도를 깨뜨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의 가치와 의미를 적극 교육하고,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녹색직업이라는 분야도 자연과학적이고 기술적 차원의 분야라는 생각으로 여학생들에게는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만은 않을 분야이다. 이 전통적 호감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각적 노력에는 오늘 소개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가 제공한 책자 처럼 여성들의 사회과학적, 정서적, 소통적 능력이 심분 발휘될 수 있는 녹색직업을 찾아내어 이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여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녹색직업이 지구환경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자부심, 녹색직업이 갖는 개인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망 등을 아울러 교육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직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제 2차 저출산0104고령사회(11~15) 기본계획 시안』(2010.9.10, 관계부처 합동)

오 은 진 | 본원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제55차 UN 여성지위위원회는 2011.2.22(화)부터 3.4(금)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있었다. 2011년의 주요의제는 의제는 ‘여성과 여아의 교육·훈련·과학기술에 대한 동등한 참여와 완전고용·양질의 노동으로의 이행’ (Access and participation of women and girls to education, training,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for the promotion of women's equal access to full employment and decent work)이었다. 제55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UN Women이 새롭게 출발한 시점이어서 더 의의가 있었다 할 수 있다. 주요패널의 의제는 총 5개로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접근 및 참여’, ‘여성의 교육·고용분야 접근 및 참여’, ‘여아 차별 및 폭력 철폐 합의결론 이행성과 평가’,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개발’, ‘모성사망에 대한 근절’로 각국의 전문가들과 국제기구의 담당자들이 향후 미래 국제사회의 역할과 개발도상국가,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원조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 55차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개최식 주요 인사들의 연설내용

개회식의 주요 연설에서 Ms. Asha-Rose Migiro(United Nations Deputy Secretary-General)은 UN Women의 설립은 양성평등과 여성지위강화를 위해 중요한 진전이며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 Summit은 양성평등과 여성지위강화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다른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 공동으로 인식하고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공동 목표인 개발, 인권,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였다. Ambassador Lazarous Kapambwe(Presid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은 연설에서 지난 10년간 여아에 대한 교육, 특히 초등교육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다수의 여아들이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음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해야 함을 주장했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NGO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주장했다.

한편 UN Women의 초대 의장인 Ms. Michelle Bachelet (Under-Secretary-General and Executive Director UN Women)은 자신의 연설에서 본인이 UN Women의 첫 번째 Under-Secretary-General과 Executive Director로 임명된 것에 대해 영광임을 나타냈으며 향후 다음과 같은 영역의 UN Women의 5개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는 여성의 사회참여 강화, 둘째, 여성에 대한 폭력의 종결, 셋째, 평화·안보 아젠다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 넷째, 여성의 경제력 증진, 다섯째, 양성평등과 관련한 국가정책에서 국가 및 지역 예산의 주요 우선순위 적용 등을 향후 UN Women이 수행해야 할 주요의제의 내용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일반토의에서는 UN의 참여국가들 중 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국가사례에 대해서 각국의 대표단이 자유롭게 발표·토론하였다. 한국대표로는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이 2011년에 한국정부가 UN Women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재정기여 부분에서 현재보다 100배 이상 수준인 약 470만 달러를 지원할 것임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에서 교육 수혜 정도의 남녀 간 격차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부분을 강조하고 여성들이 비전통분야인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과학자 채용비율을 개선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유럽대표인 Mr. Miklos Rethelyi(헝가리 국가자원부 장관)은 유럽 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나, 노동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남녀 불리현상이 나타나 남녀 간 임금격차가 존재함을 설명하고, EU는 2020년 유럽 전략을 통해 여성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독려하여 남녀 모두 75% 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발표했다.

G77+중국 그룹 대표인 Mr. Jorge Arguello(아르헨티나 유엔대표부)는 북경 행동 강령 이후에도 여성들은 가난, 문맹, 학업중단,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도 많은 장애물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G77과 중국은 세계 경제·재정 위기, 식량불안, 에너지 위기 및 기후변화 등 여성에게 새로운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경 행동강령의 이행과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대표, Doreen Siyoka (나미비아 양성평등 및 아동 복지부 장관)는 과학, 기술과 혁신이 MDG를 포함하여 사회경제적인 개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ADC가 가난, 식량부족, 사회기반시설 및 인적자원 부족 등을 극복하고 여성과 여아의 교육, 훈련, 과학과 기술에의 접근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부채탕감, 개발원조 등 지원을 요청했다.

ASEAN 대표부, Hasan Klieb, (주유엔인도네시아 영사)는 공적사회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2015년까지 아세안 국가 내 문맹률 퇴치와 모든 기초교육 수혜, 모든 수준의 정책에 젠더관점을 투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전 세계 각 대륙 대표들 연설의 공통적인 내용은 여성과 여아가

과학기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등의 문명이 잘 발달되지 않은 대륙의 경우, 여성들이 폭력,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기기 활용, 과학기술분야 학문 등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경우, 양성평등 사회 실현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여성들이 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파 여성들이 과학기술 분야 교육을 받고 해당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NGO, 각국의 국가정책이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의제별 패널토의 내용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접근 및 참여

패널토의는 국제기구 전문가, 각국의 의제관련 전문가, 그리고 해당 사례의 경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접근 및 참여’ 의제와 관련해서 패널리스트들은 각국이 국가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특히 여성들이 과학기술축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여성의 과학기술 진출 확대를 위한 role model의 중요성과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채용목표제의 채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패널리스트인 벵커 로이(인도 Barefoot College 설립 및 소장)는 2005년 이후 Women Barefoot Solar Engineer of Africa 사업은 최빈국 21개국의 전력선이 닿지 않는 농촌지역의 생활을 개선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솔라에너지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농촌지역의 삶과 생활을 바꾼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사례는 과학기술을 실생활에 이용하기 힘든 개발도상국들 여성들에게 과학기술을 이용한 생활의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고단한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삶의 변화와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패널리스트인 론다 쉬빙거 스탠포드대 교수는 과학기술의 개발에 대한 기여를 통해 양성평등을 가속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기술에 대한 더 많은 접근과 활용은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업세계의 다양성과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분야, 교육과 훈련은 여성의 권한을 증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외에 시새 무차에 보츠와나대 교수, 하키프 메서 텔아비브대 교수, 앤 미루 UNCTAD 기술수송과장 등은 학교교육에서 여성이 수학, 과학 등에서 학교단계가 높아질수록 남학생에 비해 성적이 저조한 이유가 스테레오타입의 교육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교육운영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한국결과를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경우도, 학교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수학, 과학 분야에서의 남녀 격차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해당 분야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을 전 세계가 협력체계하에서 함께 해야 함을 강조했다.

여성의 교육·고용분야 접근 및 참여

패널리스트들은 여성의 교육수혜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되었으나 노동 시장 진출은 여전히 장벽이 존재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투자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합의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주요 토의내용으로 삼았다. 첫 번째 패널리스트인 Ms. Diana Serafini(파라과이 교육 아동부 교육관리차관)은 파라과이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문맹률을 낮추고, 교사가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양성평등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Ms. Subhangi Herath(스리랑카 콜롬보대학 교수)는 가난, 건강, 조혼과 임신, 사회적 인식 등 의 이유로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IT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의사소통 능력(영어)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정보를 여성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Ms. Ilze Trapenciere(라트비아 교육과학노조 자문위원)은 직업교육(VET;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업교육을 통해 여성은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Ms. S. Gulser Corat(UNESCO 양성평등위원회)는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그 결과 남아보다 여아가 교육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 들의 현실에 대해 검토하고, 보다 어려운 지역일수록 여아 교육(특히 과학기술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아 차별 및 폭력 철폐 합의결론 이행성과 평가

여아폭력과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성폭력 등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법제화하여 사회의 안전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패널리스트들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Saad Houry(UNICEF Deputy Executive Director)는 여성청소년이 학교 및 사회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통계적으로 개선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남성과 소년들의 폭력이 감소하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도록 하는 실천과제도 함께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른 패널리스트들(Ika, 19세 인도네시아 자바; Ya Marie, 18세, 시에라이온)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여아들이 가정에서 매춘으로 내몰리는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며 여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공고히 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빈곤을 추방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는 것에 의견을 합의했다.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개발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녹색경제발전과 관련한 여성의 실천적 역할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지역사회 등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패널리스크들은 의견을 합의했다. 패널리스트들은 국가 간 재정 부담에서 있어서 국가 내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연계와 협력

방안이 제안되어야 하며 방법에 관한 실질적 협의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패널리스트인 Ms. Henrietta Elizabeth Thompson (UN지속가능발전회의)은 녹색경제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양성평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정치적 이슈가 아니고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과 내용을 각 국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사례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Ms. Monique Essed-Fernandes(여성환경단체: WEDO), Mr. Robert Freling (태양 전기기금의 Executive Directo), Ms. Albina Ruiz Rios (Health Cities Group 대표: NGO)들은 실질적으로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쓰레기문제 등 지역환경의 변화가 여성의 삶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솔라에너지 등 신기술을 여성들이 지역에서 습득·활용하도록 하여 총체적인 환경문제의 개선에 여성의 세력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합의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인 여성인권 강화에 중요한 기제임을 강조하였다.

모성사망에 대한 근절

산모건강 및 여아(Girl)의 건강과 산모사망 및 신생아 사망률(maternal mortality)을 낮추기 위한 목표(MDG 5)달성의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각 개별국가의 정부 및 국제단체(WHO, World Bank 등)가 협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산모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수준의 지역적 편차의 문제와 산모사망에 있어서 폭력과 여성인권의 차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 NGO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패널리스트인 Dr. Babatunde Osotimehin(Executive Director, UNFPA)는 통계적으로 산모의 사망률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나, 남아프리카의 경우 한해 백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엄마를 잃고 있음을 강조하고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의 정비와 실행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는 세계은행, 유니세프 등의 국제기구, 단체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다른 패널리스트인 Ms. Kyung-wha Kang(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의료지원 서비스의 체계가 정비되어야 함에 동의하며 이는 인간권리의 중요한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했다며 인간은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력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했다. Mr. Christoph Benn(Director of External Relations and Partnerships, Global Fund to Fight AIDS, Malaria and Tuberculosis)는 현재 아프리카의 AIDS·HIV관련 질병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계획이 필요함을 역설함과 동시에 성폭력, 성차별 등이 여성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고 있음에 대해 여성의 인권보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맺는 말

2011년 제 55차 유여성지위위원회회의의 의의는 우선 UN Women의 설립을 축하하고, 향후 UN Women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공동의 합의아래 참여국가들은 양성평등과 여성지위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보장, 평화유지 등을 이루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토의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여성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해왔지만, 교육에서의 발전이 고용기회의 양성평등으로 연계되지는 못했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사회적 인식, 부족한 접근기회,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유럽의 각국과 우리나라도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국들은 여학생들에게 과학기술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젠더 관점을 적극 반영하고, 교사들도 젠더 관점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합의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의하지 않아서 실생활에서도 새로운 기기를 도입한다거나 그것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부분에 대해 전 세계가 기술과 관련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여성들이 기계문명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일부국가에서는 조혼, 임신, 여성에 대한 폭력, 가난 등이 여성지위 향상과 과학기술분야에의 여성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특히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제3세계의 경우 보건·의료(Health Care System)관련한 시스템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원조도 중요하지만 여성에 대한 성폭력, 조혼 때문에 여성건강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데 합의를 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여성의 세력화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했으며, 모성사망근절을 위해 조혼, 폭력 등의 사회문제 개선 및 여성교육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2011년 주요 의제인 '여성과 여아의 교육·훈련·과학기술에 대한 동등한 참여와 완전고용·양질의 노동으로의 이행'은 UN 참여국가의 현황과 향후 개별국가들, NGO, 국제기구들의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를 위한 미래 의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여전히 제3세계 국가들과, 개발도상국, 아프리카의 빈곤 국가 등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며, 폭력과 차별 속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G20 국가의 하나가 된 우리나라는 향후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으로 국내의 성평등 확산과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 개발도상국가, 제3세계 여성의 인권보호 및 환경 변화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사업들을 개발, 전수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OECD/IFP

홍승아 | 본원 연구위원

2011년 1월 28일 열린 OECD의 미래가족회의(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 Future of Families to 2030)에는 16개국에서 온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는 2030년까지의 인구, 경제, 사회, 기술변화를 전망하면서 미래의 가족에 대한 청사진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워크숍 형식을 띠면서 미래가족에 대한 전망과 관심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회의는 IFP 책임자인 Michael Osborne과 Barrie Stevens, Pierre-Alain Schieb의 주재 하에 오전 9시 15분~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하루 일정으로 열린 회의에서 2030년까지의 인구·경제·사회·기술적인 변화와 추세분석, 미래 시나리오 설정, 일·가정양립의 미래 전망, 저소득가족과 사회통합을 둘러싼 미래 전망, 미래사회에서의 노인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전망, 세 영역연구의 정책적 함의, 종합적인 미래전망 등 모두 7개의 영역을 폭넓게 다루었다.

미래가족의 전망

먼저 Pierre-Alain Schieb의 미래가족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에 이어, Barrie Stevens는 다양한 거시자료들을 이용하여 가족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전망하였다. 먼저 가족과 관련해서 목격되는 현재의 변화와 향후 예측되는 변화들을 가족의 구성, 출산율, 평균수명의 변화, 노동인구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가족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목격되고 있는 이혼과 재혼의 증가, 한부모가족의 증가, 독신가구의 증가, 취업모 증가, 노인 증가 등으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의 형태 역시 대안적인 가족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2050년의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예측되어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예견되고 있듯이 노동인구는 감소하지만 전체인구는 증가하며, 그 중 노인인구의 증가가 미래가족의 큰 변화로 꼽힌다.

두 가지 시나리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각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문제를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두 가지 시나리오란, 점진적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의 급속한 수용을 가정하는 ‘Golden Age?’ 시나리오와, 낮은 경제안정성과 기술발전의 더딘 수용을 가정하는 ‘Back to Basics’ 시나리오이다. 과연 국가별로 현재의 상황과 미래전망에 따라서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시나리오 하에 미래사회가 펼쳐질 것인가의 문제가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었으며, 토론의 내용은 국가의 입장 및 현황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일·가정양립의 미래

미래가족의 핵심분야로 일·가정양립, 노인, 저소득가족과 사회통합의 세가지 주제를 선택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각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프랑스의 Jeanne Fagnani 박사는 ‘일·가정양립의 미래’ (The future for Work/Family Life Balance: 2 scenarios)라는 제목 하에 일·가정양립의 미래전망을 발표하였다. Fagnani 박사는 가족의 변화 외에도 복지지출의 긴축,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부모휴가 기간의 재조정 등을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주요한 문제들로 지적하였다. 그녀는 미래사회에 지속적인 공공지출 억제추세가 지속된다면 일·가정양립정책 역시 묘책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복지재정의 긴축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마저 위기에 놓이게 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우려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Fagnani 박사는 노동조직의 변화문제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었으며, 특히 유연성의 확대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노동유연성의 확대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불규칙한 노동형태로 인하여 저소득계층의 어머니들에게는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Fagnani 박사는 과연 부모휴가의 적정한 기간은 얼마인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를 위해 일정기간 여성들이 사용하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오히려 여성의 노동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독일에서 부모휴가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기간을 줄인 것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도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하려는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유사한 변화추세를 강조하였다. 다른 실증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나치게 긴 부모휴가기간은 현재와 같이 주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가형태에서는 여성의 노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적절한 부모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 여러 국가에서 부모휴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토의내용에서는 독일의 최근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주축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가족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Fagnani 박사는 다양한 변화와 긴축의 추세 속에서도 일·가정양립이슈는 향후 보다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며, 미래사회로의 이전에서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저소득가족과 사회통합

영국의 Susan Harkness 교수는 ‘저소득가족과 사회통합’ (The Future of Low Income Families and Social Cohesion) 이라는 제목 하에 미래사회의 저소득가족의 문제를 진단하였다. Harkness 교수는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저소득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Golden Age?’ 시나리오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증가하고, 근로빈곤층과 일시적인 빈곤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Back to Basic’ 시나리오에서는 더 큰 정책적인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실업층에 집중되는 만성적인 빈곤, 구조적인 실업문제에 대한 특화된 정책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청년층은 특별한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그녀는 강조하였다.

노인의 역할과 노인돌봄

스위스의 Klaus Haberkern 교수는 ‘노인의 역할과 노인돌봄’ (The role of the elderly as providers and recipients of care) 발표에서는 향후 20년동안 노인부양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노인은 돌봄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돌봄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역시 많은 국가에서 재정 긴축이 진행될 것이며, 사회불평등은 증폭되며,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복지체제의 변화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가족구성 변화, 노인독신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돌봄의 형태도 변화될 것이며, 가족의 관계망에 있어서도 경계의 유연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돌봄을 위한 휴가권리의 문제가 강조될 것이며, 노인돌봄에 대해서는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의 독특한 혼합양식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견하였다.

정책적 함의

이상의 주제발표 이후 Barrie-Stevens 는 미래전망과 관련해서 다음의 7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미래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보편주의-선별주의에 대한 논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개인과 가족, 국가 간에 책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가족구성과 관계의 변화와 맞추어 가족책임과 관련한 제도의 수급자격(eligibility)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서 돌봄휴가, 시간계좌제 등).
- 미래에는 개인과 가족을 '장기간의 역기능적인' 상황으로부터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돌봄정책, 노동시장정책, 젠더정책, 가족정책을 보다 일관적인 틀 속에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가족정책에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 세대간의 가족 상호관계와 지원 네트워크를 증대시키기 위해 도시계획, 교통계획, 주거정책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맺는말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들은 가족의 미래가 어떠한 시나리오 속에서 일·가정양립, 빈곤, 노인문제를 헤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그리는 것이었다. 잠정적인 결론은 미래가족은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해결의 주요한 방향은 일·가정양립정책의 확고한 기반과 발전 속에서 찾고 있었다. 즉 일·가정양립정책을 가족의 미래 추진력으로 찾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도 일·가정양립과 관련해서 다른 정책분야와 마찬가지로 최근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Letablier 박사가 말하듯, 프랑스가 200여년이 걸렸던 가족정책, 저출산 정책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우리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를 10% 의무도입하기로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놀라움을 표시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UN omen 5

윤현주 | 본원 연구원

들어가며

2011년 2월 24일 UN과 전 세계는 최초의 여성 통합기구 UN Women의 탄생을 기념하였다. UN Women¹⁾의 창설은 그 동안 주변부에 있어왔던 여성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국제사회발전과 인류번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그 동안 정치참여, 분쟁지역에서의 안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공공서비스 혜택의 범위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도자로서, 옹호자로서 그리고 변화의 주인으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전과 번영의 문제에 참여 할 때임을 UN Women의 창설과 더불어 세계 여러 나라의 변화들에서 감지 할 수 있다. 젠더리뷰 2010 가을호에서는 국제리뷰를 통해 “UN 여성기구 단일화의 의미와 과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²⁾ 라는 글을 소개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창설 이후 조직정비를 위한 100일이 지난 직후 발표한 UN Women의 5대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 경제 포럼이 134개국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발간한 Global Gender Gap Report (2010)³⁾에 따르면,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진 나라들일수록 국제사회에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나라이며,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나라들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경우 1985년부터 공공부문 각종위원회에서의 남녀 비율에 있어서, 40% 이상을 여성으로 할 것을 법으로 제정한 바 있다⁴⁾. 1997년에 40% 쿼터제도는 충족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공공부문 위원회 의석에서 여성은 평균 44%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부문에서도 각 정당별 선거 공천 시 여성 후보의 비율이 약 40~50%에 이르도록 자체 내부 규정을 실행하고 있다. 1999년에는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 상장기업의 이사진(board member)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3년 상장기업의 이사진 40%를 여성 이사로 임명하도록 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참여가 경제적 성장과 효율성 그리고 더 나은 성과와 직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UN Women의 창설

1) UN Women은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의 약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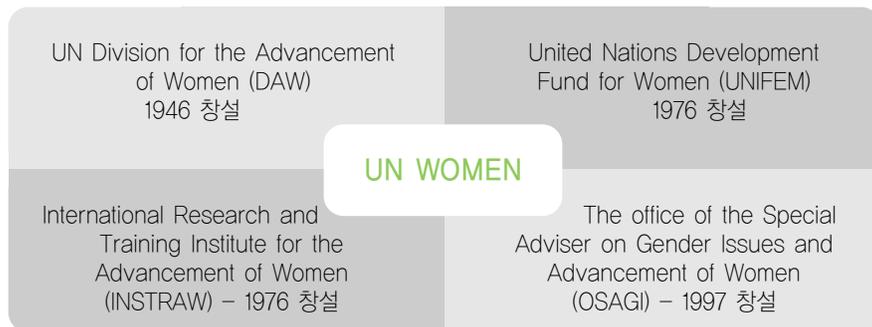
2) 저자: 신혜수, 유엔 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3) 출처 : <http://www.weforum.org/reports/global-gender-gap-report-2010?lo=1>

4) 출처 : http://www.europeanpwn.net/index.php?article_id=150

UN Women의 창설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온 UN 개혁의 첫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던 UN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좀더 효율적인 재원의 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집약되었으며, UN Women의 창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기존 4개 여성관련 기구의 단순 물리적 통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수의 기구(UNDP, UNICEF, UNFPA)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왔던 여성 및 여아에 관한 UN의 노력을 한 개의 사령탑을 통해 조화와 조율을 도모하고, 나아가 좀더 전략적으로 발전-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UN이 상주하여 활동하는 국가 내에서의 심도 있는 협의 과정을 통해 해당국가의 정책과 국내법적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의 여성관련 기구의 총 사업 예산보다 대폭 확대된 재정의 확보 그리고 향상된 최고 리더십의 UN내 지위(UN사무차장: Under Secretary General)는 여성/양성평등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재원의 투자와 고위급 의사결정의 여성 참여' 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UN내 사무차장(USG)급은 약 50명이며, UN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UN내의 중요 정책 및 방향을 다루는 중요한 고위급 지위이다. UN사무차장(USG)는 UN사무총장, UN사무부총장 다음으로 UN내 직위 서열 3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지위의 향상은 UN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펼치겠다는 인식 변화와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2010년을 기준으로 매년 미화 50억불(\$500million)이 배정될 예정이다. UN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금과 UN 분담금을 통해 지원되는 본 예산은 UN Women의 활동이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5) UNDP, UNICEF, UNFPA의 여성/젠더 관련 업무 및 기능은 UN Women의 창설과 역할을 통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4개 여성관련 UN기구의 예산을 합친 것 보다는 상향 조정된 금액이나, 더욱 영향력있는 활동을 위해 좀 더 많은 양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처럼 UN Women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효율적이고 강력한 실행기관으로서, 재정과 리더십의 권한 (UN내 정책위원회, 고위 관리그룹 등 UN내 정책결정기구)에의 참여)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UN Women의 창설은 '국제적 규범과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UN 활동 전반에서 양성평등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UN창설 이후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요 정책문서로는 UN 총회 결의안 (Resolution 64/289, 2010) 과 그 부속 문서 System-wide coherence (A/RES/64/289): Paragraphs 49-90 relate to the establishment of UN Women, UN 총회 결의안 (Resolution 63/311, 2009)와 그 부속 문서 System-wide coherence (A/RES/63/311), 그리고 반기문 UN사무총장 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2010): Comprehensive proposal for the composite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64/588)가 있다.

UN WOMEN 역할, 관심사 그리고 원칙

기존의 UN여성관련 사업은 UNIFEM을 비롯한 4개의 여성관련 기구 그리고 각각의 UN 기구 별로 여성 및 젠더 관련 프로그램 및 부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상호간의 기능 및 역할수행에 있어서, 중첩을 피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수원국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UN Women이 각 수원국 내에서의 UN의 활동에 있어서 젠더 및 여성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조율 및 조화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UN Women의 역할은 각 국가의 여성위원회등과 같은 여성관련 정책 담당 국가기구들과의 협동을 통해 국제적 기준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발하고, UN 회원국들의 요청에 맞춘 국제사회의 규범과 양성평등 정책을 실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장려하는 것과, UN 스스로가 제안하고 장려하는 양성평등의 기준 및 약속을 UN 내에서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UN 전반의 활동과 UN 시스템 내에서의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하여 집중하게 될 UN Women의 주요 관심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으며, 이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철폐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여성역량 강화 (empowerment of women), 그리고 개발, 인권, 인도적 지원 그리고 평화/안보의 분야에 있어서 동등한 파트너이자 동시에 수혜자로서의 여성과 남성 평등 달성(achievement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as partners and beneficiaries of development, human rights, humanitarian action and peace and security)이다.

이러한 역할 및 관심사를 반영하 듯, UN Women의 활동 목적은 국가적으로 성인지적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적 약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성공전략을 정교화하여 해당국가가 관련 법/정책/전략에 대해 오너십(ownership)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집중 될 것이다.

5대 핵심 원칙을 반영한 5대 우선 과제 (Five thematic priorities)⁶⁾

1) 여성의 의견, 리더십 그리고 참여를 확대

Expanding women's voice,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working with partners to close the gaps in women's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in different sectors and to demonstrate the benefits of such leadership for society as a whole:

2)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by enabling states to set up the mechanisms needed to formulate and enforce laws, policies and services that protect women and girls, promote the involvement of men and boys, and prevent violence:

3)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의 어젠다의 이행 강화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of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through women's full participation in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processes, gender-responsive early-warning, protection from sexual violence and redress for its survivors in accordance with UN resolutions:

4)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Enhancing women's economic empowerment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context of glob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rises. UN Women will work with governments and multilateral partners to ensure the full realization of women's economic security and rights, including to productive assets and full social protection:

5) 양성평등을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부처차원의 기획 및 예산 편성에서 중추적 기준으로의 채택 도모

Making gender equality priorities central to national, local and sectoral planning and budgeting: working with partners, UN Women will support national capacities in evidence-based planning, budgeting and statistics.

위의 기준에 의거 UN Women의 사업 분야는 1) 여성에 대한 폭력, 2) 평화와 안보, 3) 리더십과 참여, 4) 경제적 역량강화, 5) 국가발전전략 및 예산, 6) 인권, 7) 새천년개발계획(MDG) 이렇게 7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위에 열거된 핵심분야 및 세부분야의 업무를 다음의 7개의 사업 영역을 통해 실천해나갈 것이다.

- 1) 프로그램 사업과 기술적 지원 (Programme and Technical Assistance)
- 2) 자금 사업(Grant-making Funds)
- 3) 유엔 여성 지위향상 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6) 비전, 미션, 원칙: UN Women 제 1차 집행위원회 정기 총회에서 미첼 바틀렛 사무처장이 발표한 100일간의 행동계획 중에서 발췌 (Statement to the First Regular Session of the Executive Board,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4) UN총회, UN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안보리이사회 등의 UN 회원국간 공식회의 (Other Intergovernmental Processes)
- 5) 역량강화 및 연수/훈련 프로그램 (Capacity Development and Training)
- 6) 전문가 그룹 미팅 (Expert Group Meetings)
- 7) UN 시스템 내 조화 및 조율 작업 (UN System Coordination)

그리고 각각의 업무에 있어서 공여국/기관(Donors), 파트너 국가의 여성기구 (National Women's Machineries), 사기업/민간부문(Private Sector), 시민단체(Civil Society), UN Women의 국가 위원회 (National Committees), 친선대사(Goodwill Ambassadors)들과 함께 일을 해나갈 것이다.

조직 및 사무소

UN Women는 UN총회, UN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그리고 UN여성지위향상위원회(CSW)에서 결정된 정책방향에 따라 집행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UN Women의 집행이사회는 또한 국제개발 분야를 담당하는 다른 UN기구들의 집행이사회에도 관여를 하게 되며, 이는 UN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젠더관련 사업 및 성 주류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집행이사회는 UN 회원국 중에서 41개의 회원국들로 구성이 되며, 41개의 집행이사국 자리는 순환직으로서 지역별 할당률에 따라 배정된다(총 6개의 지역 구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는 각각 10개의 회원국이, 동유럽은 4개의 회원국, 서유럽은 5개의 회원국, 중남미-카리브해는 6개의 회원국이 집행이사회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동티모르와 함께 아시아권 10개 집행이사국 초대 멤버로서 2010년 11월 10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집행이사회의 첫 임원 선출은 2010년 12월 22일에 있었으며, 회장으로 Mrs. UJoy Ogwu 주 UN 나이지리아 대사를 집행 이사회의 회장으로 하여, 4명의 부회장국은 각각이 속한 지역을 대표하며, 선출된 부회장국의 주 UN대표부 대사가 부회장직을 담당하고 있다.

Vice President-Asia Group (아시아지역 부회장국)

- Mr. Zahid Rastam, Counsellor, 주 UN 말레이시아 대표부

Vice President-Eastern European Group (동유럽지역 부회장국)

- Ms. Olha Kavun, Second Secretary, 주 UN 우크라이나 대표부

Vice-President-Latin America and Caribbean Group (중남미-카리브해지역 부회장국)

- Ms. Carmen Arias, First Secretary, 주 UN 페루 대표부

Vice-President-Western European and Others Group (서유럽 및 기타지역 부회장국)

- Mr. Magnus Lennartsson, Minister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주 UN 스웨덴 대표부

UN Women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아프리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국가, 아랍국가,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 유럽 및 CIS 국가에서 일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15개의 지역본부, 12개의 국가별 프로그램 사무소, 45개의 프로젝트 사무소 그리고 4개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국을 담당하는 동/동남아시아 지역본부는 태국 방콕 시에 소재하고 있다. 지역본부장인 Moni Pizani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0년 아태개발협력포럼에 참여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큰 관심을 가지고 본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동/동남아시아 지역본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태 양성평등 역량강화 사업지인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관장하는 사무소로 매우 중요한 사업 파트너이다.

리더십

UN Women의 첫 수장은 미셸 바츨렛(Michelle Bachelet, 1951) 전 칠레 대통령이다. 그녀는 이렇게 다양하고 강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UN 첫 여성통합기구 UN Women의 초대 수장이자, 지금까지 존재해온 UN의 여성관련기구의 수장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 UN사무차장(Under Secretary General)의 자격으로 첫 발을 내딛는 미셸 바츨렛 UN사무차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칠레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UN과 국제사회는 2010년 칠레를 강타한 규모 8.8의 대 지진에서 보여준 그녀의 리더십을 기억하고 있다.

그녀가 반기문 UN사무총장으로부터 UN Women의 수장직을 제안 받기까지에는 그녀의 전문성과 양성평등에 대한 열정을 빼놓을 수 없다. 바츨렛 UN사무차장은 평생에 걸쳐 칠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의학에서 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평가 받아왔다. 또한 그녀의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열정은 대통령/장관 재임 당시 정책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단행한 혁신적 개혁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다양한 부처의 장관직을 역임하면서 개혁과 양성평등의 정책 실현을 주도해 왔던 그녀의 역량이 UN Women에서도 발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UN Women 홈페이지)⁷⁾

7) 출처: <http://www.unwomen.org/about-us/executive-director/>

끝맺는 말

2월 24일 UN Women의 공식 출범 행사는 Social Network 'Twitter'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되었다. UN 과 국제개발에서의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트위터 메시지에 주목 하였으며, 설레임 속에 UN Women의 공식적인 첫 걸음을 지켜 보았다.

물론 모든 것이 핑크 빛만은 아니다. UN Women 자체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다. 기본 기능을 넘어서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추가 예산 확보의 문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조직/업무 준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새로운 UN기구의 출범은 국내적으로도 논의의 점을 제공한다. 증가하는 UN 분담금에 맞추어 한국인의 UN 진출 확대의 과제가 남아 있으며, UN내의 리더십으로 진출하는 좀 더 장기적인 과제들도 남아있다.

대신 필자는 UN Women 출범의 미래 지향적 메시지에 주목하고 싶다. MDG(새천년개발목표)를 5년 앞둔 시점에서, 본 기구를 통해 좀 더 강화되고 재정비될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UN의 노력을 생각해본다. 또한 양성평등적 관점을 통해 '측정 가능하고 가시적인 결과' 를 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 단계 더 도약 될 것을 상상해 본다. 그리고 5년 후 MDG 평가 보고서에 UN Women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포함한 전세계 여성관련 기구들의 수고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